

읽기 이론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연구*

배수찬**

〈 차례 〉

- I. 머리말
- II. 논의를 위한 시대 구분
- III. 전근대 읽기 이론의 전개
 - 1. 제1기 : 성리학적 읽기 이론
 - 1.1. 주희의 읽기 이론 : 외물과 일처리에 대한 공부
 - 1.2. 이이의 읽기 이론 : '체득(體得)' 가능한 지식의 강조
 - 2. 제2기 : 한글 창제와 읽기 이론의 변화
 - 2.1. '음성'의 문제를 강화한 한문 읽기 이론의 형성
 - 2.2. 한글 읽기 이론의 맹아 : 최세진의 이론
- IV. 근대적 읽기 이론의 전개
 - 1. 근대 언어학의 발달 : '의미'의 발견
 - 2. 근대적 읽기 이론 : 표음 문자의 의미 파악
- V. 맺음말

I. 머리말

이 논문은 우리 나라에 있었던 읽기의 이론들을 역사적으로 검토해

* 이 논문은 2004년 7월에 열린 국어교육학회 제28회 학술발표대회에서 '한국 독서사에 대한 이론적 개관 - 언어학적 전제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개인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주신 한국교원대학교 박영민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보고 살펴보고 그에 깔려 있는 전제들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읽기의 내용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는 선행 연구에서 어느 정도 시도된 바 있고¹⁾, 내용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현대적 해석은 더 많은 시일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과거에 있었던 읽기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 사적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가 오늘날의 읽기 개념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의 읽기와 읽기 교육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II. 논의를 위한 시대 구분

읽기 이론의 역사는 국어생활사²⁾의 일부로 볼 수 있는데, 국어 생활의 관점에서 읽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문자 활동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의 문자 생활은 근대 이전까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용어³⁾ 가운데 공용 문자가 한자 한문이면서 한글이 없었던 시기. 이하 이 시기를 제1기로 한다. 둘째, 공용 문자가 한자 한문이면서 한글이 있었던 시기. 이하 이 시기를 제2기로 한다. 셋째, 공용어가 우리말과 한글이 된 시기. 이하 이 시기를 제3기로 한다.⁴⁾ 물론 이러한 시대 구분은 이론의

- 1) 이응백(1975)에서 근대 이전의 어문교육에서 다루었던 커리큘럼을 정리한 바 있다. 이응백의 연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습자를 위한 교재와 문리의 터득을 위한 교재를 구분하여 다른 차원에서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하 김영의 논의에도 커리큘럼의 특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다.
- 2) 국어생활사는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문화 중심으로 바라본 국어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화 중심으로 국어사를 개관한 논의로는 민현식(2003)을 참조.
- 3) 공용어란 관공서에서 공식으로 사용하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포괄하여 일컫는다. 예컨대 조선시대의 공용어는 음성 언어는 우리말, 문자 언어는 한문이었다. 물론 한글이 행정에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았다. 법률적 효력을 갖는 국문 문서들의 종류에 대해서는 김종철(2004: 105-106) 참조.
- 4) 이러한 구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박영민 교수는 1기와 2기에 음성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기 위한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

공용 문자가 한자 한문이면서 한글이 없었던 시기는 고대 국가 수립 이후부터 조선 초기 세종 대왕의 한글 창제 직전까지의 시기를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이 시기의 읽기는 한국 한문이든 향찰이나 이두에 의한 글이든 한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에 읽기란 외적으로 보면 '한문책 읽기'인 것이다.

이렇게 독서가 '한문책 읽기'⁵⁾로 정착된 것은 그 당시의 공용 문자가 한문(漢文)이었기 때문일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조선시대에 한글이 창제되기 전까지도 이 사정은 그대로였다. 우리의 음성 언어는 일찍이 '언(諺)', '속언(俗諺)', '언문(諺文)', '방언이어(方言俚語)' 등으로 불리웠고, '공식적이지 않은 일상인의 음성 언어'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 이것은 현대 국어의 근간이 되는 '음성 언어'의 기원이 되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일정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 글은 읽기 이론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루는 자료 속에서 '읽기'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읽기'는 오늘날 국어교육에서 말하는 '읽기'와는 다른 의미일 수 있으며, '독해' 등의 개념과도 다르다.⁶⁾ 문자 그대로 푼다면 '책읽기'가

언어가 빠져 있다는 점, 그리고 1기와 2기에도 '우리글'은 아니지만 '우리말'은 공용어로 기능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모두 타당성이 있는 지적들이다. 그러나 1기와 2기에 공용어로서 음성 언어가 빠진 데에는 나름의 이유도 있다. 오늘날 공용어란 관공서나 매스컴 등에서 쓰이는 언어인데, 1기와 2기에는 방송이나 연설 등 매스컴이라 할 만한 것이 오늘날에 비해 매우 적었다. 당시의 매스컴이라 할 언론이나 언론은 모두 한문을 사용했다. 崔承熙(1976) 참조. 그리고 '우리말'이 공용어로 쓰였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당시 현실에서 음성 언어가 지녔던 편폭이 협소했음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는 더 정교한 시대 구분의 준거를 마련하기 전까지 편의상 사용하기로 한다.

- 5) 물론 전통 사회의 읽기 행위를 모두 '한문 읽기'로 규정하는 것은 근대의 편견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김종철(2003: 94) 참조. 그러나 더 세분한 연구가 진행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이렇게 불러 두고자 한다.
- 6) 읽기의 하위 개념으로서 '독서'와 '독해'의 개념 차이는 우한용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독해는 문자의 해득을 통한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반면, 독서는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와 감상을 전제하는 용어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

되겠으나, 이 글에서는 상당히 넓은 시대를 다룬다. 따라서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한 근대적 편견이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읽기란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책, 독자, 작자, 맥락의 상호 작용 가운데에서 어떤 지점이 강조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완전히 다른 지평과 세계에 놓여 있는 과거의 상황을 연구할 때에는 읽기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Ⅲ. 전근대 읽기 이론의 전개

1. 제1기 : 성리학적 읽기 이론

1.1. 주희의 읽기 이론 : 외물과 일처리에 대한 공부

근대 이전의 한국에서는 '읽기'의 의미가 오늘날의 그것과 사뭇 달랐다. 전통 사회는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그 가운데서도 앞에서 말한 문자 생활 제1기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표음 문자가 없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읽기는 한문 읽기로 한정되었다. 그런데 한문은 중국글이었기 때문에 읽기에 대한 논의도 중국에서 시작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책을 읽는 것은 이차적인 일이다. 생각컨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도리를 온전히 갖추고 있지만, 책을 읽어야 하는 까닭은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인은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보여 준 것이다. 지금 책을 읽는 것은 수많은 도리를 깨달으려는 것이다. 이해한 뒤에는 역시 모두 자신에게 본디 있던 것이지, 밖에서 끌어다 첨가한 것이 아

님 구별은 문학교육이나 감상교육을 염두에 둔 구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한용(1997: 112) 참조.

니다.⁷⁾

위 자료는 중국 사상사에서 이른바 '사서(四書)'라는 커리큘럼을 확립하고 읽기 방법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한 주희(朱熹, 1130~1200)의 읽기 이론이다. 오늘날 읽기는 '의사 소통 과정'⁸⁾이나 '의미의 재구성 과정'⁹⁾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12세기의 주희에게는 그러한 의식이 별로 없었다. 주희는 '읽기(독서)란 무엇이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읽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말하고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대의 관점에서 '읽기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데 대한 규정적 대답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책읽기의 목표가 오늘날과 달리 '정보(情報)의 습득'¹⁰⁾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온전히 갖추고 있는 삶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정보(情報)'란 근대 이후에 널리 쓰이기 시작한 말로써 '사물의 내용이나 형편에 관한 소식이나 자료'를 가리키는 말이다.¹¹⁾ 우리는 어떤 읽

7) "讀書已第二義 蓋人生道理合下完具 所以要讀書者 蓋是未增經歷見許多 聖人是經歷見得許多 所以寫在冊上與人看 而今讀書 只是要見得許多道理 及理會得了 又皆是自家合下元有底 不是外面添添得來" 朱熹, 『朱子語類』 卷第十 學四, 讀書法上 2조목; 黎靖德 編纂/허택 외 역주(2001: 197)에서 인용하였다.

8) 최현섭 외(1996: 247).

9)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1999: 208).

10) 독서와 읽기에 대한 현대의 규정에는 '정보'나 '의미'가 강조된다. '인간은 독서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고도의 지적 능력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1999: 208~209)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고전적 관점에서는 읽기를 정보 처리, 즉 기호를 해독하는 과정으로 본다.'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1999: 645). 이러한 관점이 독자의 수동성을 전제하고 있는 데에 반발하여 최근에는 독자의 '의미 구성'이라는 측면이 강조된다. 그러나 '의미 구성'도 궁극적으로는 정보의 주체적인 처리와 소화로 이해할 수 있다.

11) 『大漢和辭典』에 따르면 '情報(じょうほう)'라는 단어는 고전 한문에서는 사용된 바가 없었고, 근대 소설가인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글에 쓰인 용례가 나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岩波 古語辭典』(東京: 岩波書店, 1974)에는 '情報'라는 표제어가 없다. 『日本 國語大辭典』(東京: 小學館, 1983)에는 '事柄の内容, 様子, またその知らせ(사태의 내용, 모습, 그리고 그것의 알림)'이라 하여 영어의 'information'의 번역어임을 암시하고 있다.

기 내용물 안에 들어 있는 정보가 쓸모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우리는 정보를 실제 세계의 현실과 대조해 보면 된다고 믿는다.¹²⁾ 즉 정보의 사실 여부는 나의 체득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객관적인 것으로서 외부 세계에 존재한다고 본다. 그런데 주희의 이론에서는 읽기의 내용은 내 안에 이미 구비되어 있고, 오직 그것을 체득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해한다. 즉 진리의 기준으로써 '명제와 실제의 일치'가 아닌 '명제의 체득(體得) 가능성'을 들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책을 읽는 것은 외물과 일처리에 이르는 공부 가운데 하나이다. 지금 우선 단락을 따라서 자세하게 천천히 음미하고 이리저리 반복하여 하루 혹은 이틀 동안 단지 한 단락만을 본다면, 그 단락은 곧 자기 것이 된다. (...) 글의 구법과 의리의 내용은 단지 그렇게 풀이할 뿐이지만 한 번 읽을 때마다 더욱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내 책은 한 번 읽을 때마다 다시 고치게 된다. 이미 확정된 견해도 한 번 읽을 때마다 더욱 온당해지고 더욱 분명해진다.¹³⁾

이 인용문은 '읽기'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읽기는 단순한 언어 행위가 아니라 '외물과 일처리에 이르는 공부'의 하나인 것이다. 즉 세상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다양한 심신(心身) 공부(工夫)의 일종인 것이다. 그리고 이 인용문에서는 글의 '구법'과 '의리'라 하여 읽기 내용물인 책의 '표상'¹⁴⁾ 내용에 대한 일정한 관심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표상

12) 서양철학에서는 어떤 검증 대상이 되는 지식의 진리 여부를 사실과 대조함으로써 알 수 있다고 보는 견해를 대응설(對應說)이라고 한다. 반면에 어떤 지식의 진리 여부는 기존의 판단 체계에 모순되는지의 여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보는 견해를 정합설(整合說)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지식이 실생활에 좋은 결과를 제공할 때 그것을 진리라고 보는 견해를 실용주의(實用主義)라고 한다. 김여수 외(1989: 36~57) 참조.

13) "讀書是格物一事。今日須逐段子細玩味，反來覆去，或一日或兩日，只看一段，則這一段便是我底。(...) 書之句法義理，雖只是如此解說，但一次看，有一次見識，所以某書，一番看，有一番改。亦有已說定，一番看，一番見得穩當，愈加分曉" 黎靖德 編纂/허택 외 역주(2001: 219-220).

14) 어느 시대에나 문자는 그것이 나타내는 바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자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타냄'의 기능이 언제나 오늘날처럼 '의미의 지시'인 것은 아니었

내용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더욱 온당해지고 더욱 분명해진다. 즉 특정한 하나의 목표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희에게는 책읽기의 목표가 씌어진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처리에 도움이 되는 의리(義理), 몸으로 해 보아서 사리에 합당한 것을 체득하는 일이 책읽기의 목표다. 이미 확정된 견해라도 체득이 깊어질수록 반복해 읽을 때마다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다. 즉 견해에 대한 앞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다.¹⁵⁾

1.2. 이이의 읽기 이론 : '체득(體得)' 가능한 지식의 강조¹⁶⁾

주희의 읽기 이론은 한글이 창제된 뒤에도 그대로 계승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글이 공용문자로서 '언문'에서 '국문'으로 격상하는 것이 갑오경장 이후이므로, 그 이전의 공식적이고 일반적인 읽기 양상은 여전히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한문 읽기'였음은 명백하다. 읽기의 방법과 절차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논의로서 이이(李珣)의 『擊蒙要訣』 독서장(讀書章) 제4를 참조할 수 있다. 독서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배우는 자는 항상 자기 마음을 보존하여 사물에 구애받지 않게 해야 하고, 반드시 이치를 궁구하여 선을 밝힌 뒤에야 마땅히 행할 길이 환히 눈앞에 보여 가히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道)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치를 궁구할 것이요, 이치를 궁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성현이 마음을 쓰신 자취'와 '본받거나 징계할 선악의 문'은

다. 그럼 문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연상이 가능했으며, 창제 당시의 한글은 단순히 소리만 나타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시'나 '의미'보다는 '표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서구의 언어학사를 표상의 관점에서 정리한 노작으로 미셸 푸코(1987) 참조.

- 15) 조희정은 이러한 중세적 글읽기의 특징을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이라는 관점에서 논하였고, 그러한 글읽기의 방식은 몸으로 실천하는 단계, 즉 체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희정(1998) 참조.
- 16) 이이(1536-1584)는 한글 창제 이후의 인물이지만, 읽기 이론의 측면에서는 주희를 긍정적으로 계승한 인물이다. 따라서 다소의 편차가 있지만 제1기적 성격을 띤 인물 이어서 이 절에서 다룬다.

모두 책 속에 들어있는 까닭이다.¹⁷⁾

이이도 주희처럼 읽기를 그 자체로 규정하지 않고, '이치를 궁구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 점에서 읽기를 '이차적인 것'이라고 바라본 주희의 주장과 그대로 일치한다. 이이는 정통적인 성리학자(性理學者)로 규정될 수 있는 인물이며, 한글에 대한 뚜렷한 자각이나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이로 보기 어렵다.¹⁸⁾ 또한 책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의 문제를 직접 추구할 뿐, 책을 구성하는 문자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책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은 '성현이 마음을 쓰신 자취(聖賢用心之迹)와 '본받거나 징계할 선악의 문제(善惡之可效可戒者)'라 하였다. 오히려 '구법'과 '의리' 등을 지적하여 문자의 표상 내용을 분명하게 한 주희의 관점보다 선명할 것이 없다. 그 대신에 이이는 책읽기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위들을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밝혀 놓아 논의할 거리를 준다.

무릇 책을 읽는 자는 반드시 단정히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공경히 책을 대하여 마음을 오로지 하고 뜻을 다하며 자세히 생각하고 함영(涵泳)하여 깊이 의취(義趣)를 이해하고 구절마다 반드시 실천할 방법을 구해야 하니, 만일 입으로만 읽어서 마음에 체득하지 않고 몸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책은 책대로이고 나는 나대로일 것이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¹⁹⁾

『擊蒙要訣』의 또다른 부분인 이 구절은 당대의 읽기가 갖는 특징을

17) “學者常有此心，不被事物所勝，而必須窮理明善然後，當行之道曉然在前，可以進步。故入道莫善於窮理，窮理莫善乎讀書。以聖賢用心之迹，及善惡之可效可戒者，皆在於書故也。” 이이, 『擊蒙要訣』 독서장 제4 ; 이이/성백효 옮김(1992: 90)에서 인용하였다.

18)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문언(文言)을 강조하는 철학으로, 음성 언어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이것은 성리학의 경전이 대부분 선진(先秦)의 글이거나 한대(漢代) 유가(儒家)들이 편집한 고문(古文)이기 때문이다.

19) “凡讀書者，必端拱危坐，敬對方冊，專心致志，精思涵泳，深解義趣，而每句必求踐履之方，若口讀而心不體身不行，則書自書我自我，何益之有?” 이이/성백효 옮김(1992: 91).

비교적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책읽기의 목표는 '깊이 의취를 이해하는 것(深解義趣)'과 그러한 의취를 '실천할 방법을 구하는 것(求踐履之方)'이다. 또한 이이는 읽기를 언어 행위로만 축소시키는 것을 경계한다. '입으로만 읽기(口讀)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⁰⁾ 즉 무언가를 언어로 자극받았으면 단순히 의미 파악에 그치지 말고 의취를 깊이 이해할 것이며, 그러한 의취에 따른 실존적 이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책읽기의 완성이다.

이것은 책읽기가 대응설에 입각한 검증 가능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지식, 즉 체득될 수 있는 지식을 강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굳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풀이하자면 '미국의 주(州)는 50개이다'²¹⁾와 같은 검증 가능한 지식보다는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되니, 책임이 무겁고 갈길이 멀기 때문이다'²²⁾와 같은 실제 살아가면서 자기 몸의 체험으로 획득하는 실존적 지식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오늘날의 읽기와 교육 경향이 사실적인 정보 습득에 치우쳐 있다면, 과거에는 인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알고 확인하며,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전 단계로서 책을 읽었던 것이다.

이이의 읽기 이론은 근본적으로 주희의 계승이다. 이이는 읽기 행위의 대상과 목표를 확정하고 추상적으로 개념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²³⁾ 오히려 읽기는 독립된 행위가 아니라 전체적인 '인간 수양'의 프로

20) '입으로만 읽기를 경계한다는 것은 읽기에서 음성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게 보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오늘날의 읽기는 '표음 문자를 읽음으로써 의미를 파악하는 행위'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그 와중에서 '체득이 필요한 실존적인 지식'이 독서에서 점차 경시(輕視)되어 간다.

21) 유길준의 『서유견문』이야말로 이런 검증 가능한 단편적 지식들로 가득찬 책인데, 이러한 지식은 전통 사회가 서구의 충격을 받기 전에는 그다지 중시되지 않던 것이다. 이는 성리학의 지식 체계가 가진 유용성을 완벽하게 붕괴시키는 근대적 독서 자료의 아주 중요한 예이다.

22) "曾子曰,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論語』 泰伯篇 7장.

23) 이는 근대 이전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이기도 하다. 일본의 과학사학자 야마다 케이지는 중국인들의 학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성리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은 그 사상을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을 넘어서게 되면 표현하지 않았다. 언어표현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그것에 대해 사색하지 않고 아무런 지식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필요

그램 속에서 한 가지 필수적인 방편으로 여겨질 뿐이다. 물론 그것이 문자를 다루는 특수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목표는 자연스러운 의리(義理)의 체득과 실천이지, 의미를 기능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아닌 것이다.

2. 제2기 : 한글 창제와 읽기 이론의 변화

2.1. '음성'의 문제를 강화한 한문 읽기 이론의 형성

지금까지 논했던 성리학적 읽기 이론은 읽기에서 '말소리'의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이와 같은 성리학자들은 암암리에 읽기가 말소리를 매개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제한다. 게다가 한자(漢字)라는 문자는 기본적으로 '소리 정보'가 아닌 '모양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청각(聽覺)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한문문명권에서 '표음문자를 읽는' 체험은 혼한 것이 아니었다. '글을 읽는다' 하면 그것은 한자라는 표의성을 띤 문자의 해독과 끊임없는 주석(註釋), 그리고 체득을 위한 수양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이 창제되었다. 즉 한글이 창제되었다는 것은 소리의 표준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표기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존재하던 소리 상태의 우리말이 한글이라는 '정음(正音)'²⁴으로 인해 고정된다. 표음문자는 '말소리의 고정'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말소리가 고정되지 않고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서로 다르게 들리는 상태로만 있다면 그 말소리는 소통의 수단으로 쓰이기 어렵다.²⁵ 우리말이 표

성이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실천에 있어서의 그것이며 그 유용성이다." 야마다 케이 지/김석근 옮김(1994: 73).

24) '정음'이란 단순히 한글의 다른 이름이 아니고 고대 중국에서 널리 쓰이던 용어였다. 이는 '음을 바로잡는다는 것으로 송의 철학자 소고(召古)는 이미 『정음서록(正音敍錄)』이란 책을 저술한 바 있다. 심소희(1995: 74).

25) 주시경은 애국계몽기에 우리말의 표기가 고정되지 못하여 언어가 잘못 사용되고 문자가 오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말 소리의 근대적 연구에 착수하였다. 대표적

기 수단을 얻어 글이 써지고 책이 생기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전통 사회에서 읽기의 대상은 대부분 한문책이었고, 그 읽기의 방식은 한자음을 낭송하는 것이었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라든가 '천지현황 우주홍황 일월영축 진숙열장' 하는 식이다. 그런데 한글이 창제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한자음조차 완전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한글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업의 하나가 한자음의 표준화였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음성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이론은 언어학에 관심이 없었던 제1기의 성리학자들에게는 매우 낮선 것이었다.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성인의 도가 천지에 우거하고 있을 따름이었고, 문자가 만들어진 뒤에는 성인의 도가 여러 책에 실리게 되었다. 따라서 성인의 도를 밝히고자 하면 마땅히 글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고, 글뜻의 요점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성운부터 알아야 하니, 성운은 곧 도를 배우는 시초이나 또 어찌 이를 쉽게 깨우칠 수 있겠는가! (...) 정음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온갖 입에서 나는 한 가지 소리가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으니, 실로 음을 전하는 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구실을 하게 되었다.²⁶⁾

읽기가 '의미를 가진 소리로 전환될 수 있는 글을 읽는 것'이라는 관점이 최초로 성립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의미를 가진 소리'는 한자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한글로 된 글을 읽는 읽기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순수 우리말 구체어는 '의미를 가진 소리'로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야 온전하게 문자로 정착될 수 있었다. 예컨대 『훈몽자회』에서 한자를 풀이하면서 '棠 아가워 당'이라 했을 때 '아가워'는 한글이 창제됨으로써만 발생할 수 있는 언어 형

인 저술이 「國語文典音學」이다.

26) “書契未作，聖人之道，寓於天地。書契既作，聖人之道，載諸方策。欲究聖人之道，當先文義。欲知文義之要，當自聲韻。聲韻乃學道之權輿也。而亦豈易能哉？(...) 自正音作而萬口一聲，毫釐不差，實傳音之樞紐也。” 「東國正韻 序」, 강신항(1987: 181-182)에서 인용하였다.

태이다. 이로써 구체어를 적은 시조, 가사, 소설 등 각종 국문문학이 발생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저 관습적 낭독을 통해서 향유되었을 뿐,²⁷⁾ 체계적인 국문 읽기의 이론이 근대 이전에 개발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한글이 창제되고 음성에 대한 자각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조선 시대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한자음'의 문제와 관련하여 음성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²⁸⁾ 순우리말을 옮겨서 글을 쓰고 그것을 읽는다는 읽기 이론은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했던 것이다.²⁹⁾ 당대인들은 한글이 창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한글을 읽는 읽기 이론에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기서 이 문제를 깊이 탐구할 겨를은 없다.³⁰⁾ 다만 당대에는 지식인들이 독서의 내용을 독점하고 있었고, 지식인들의 의식에는 한문으로 된 공부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한문은 중국어음과 분리해서 학습할 수 있는 문어(文語)이기 때문에 전통 한국에서는 음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읽기 이론이 발달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³¹⁾

그러나 음성에 대한 고려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말과 글이 다

27) 고전소설과 낭독의 관계에 대해서는 줄고(2001) 참조.

28) 예컨대 『龍麟精義正音』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申景濬(1712~1781)만 하더라도 그의 문자론이 주목되고 있으나, 사실 신경준 본인은 운도의 한자음에 더 관심이 많았다. 김민수(1980: 167) 참조.

29) 말하듯이 글을 쓸 수 있고, 그렇게 쓴 글을 읽는다는 관점이 수립하기까지는 이처럼 많은 시간과 지적 투쟁이 필요했다. '말하듯이 글쓰기'에 대해서는 이오덕(1991) 참조.

30) 순한글로 된 문헌으로 사회의 중핵이 되는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국문의 공용(公用)이 이루어지는 1894년 이후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1) 국문으로 보통 교육이 이루어질 것 (2) 국문으로 이루어진 모범 문장집이 성립할 것 (3) 표기법의 통일이 국가 단위로 이루어질 것 (4) 국문으로 표기된 어휘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사전이 편찬될 것.

31) 예컨대 각주 23) 참조. 물론 한문을 공부할 때 암송과 낭송의 방식이 활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자음의 나열식 읽기로, 음절을 하나하나 떼어냈을 때에 그 의미를 확인하기 어렵다. 자족적인 소리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한문이라는 문자 언어를 편의상 읽는 방법으로서 소리를 활용할 뿐인 것이다.

른 이중 언어 사용의 조건에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말에 대한 자각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때로는 중국의 언어 생활과 우리 나라의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읽기에서 '음성'의 중요성을 유추적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북학파인 박지원은 중국의 상황과 대비하여 독서에서 음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개입한다는 사실, 그리고 '음성과 결합된 독서'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글자로부터 말 배우기로 들어가고, 우리 나라는 말 배우고 글자 배우기로 들어가므로, 중국과 우리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말 배우고 글자 배우기로 들어가면 말은 말, 글은 글대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天'자를 '漢捺 天' 하면 이것은 글자 외에 다시 한겹 풀기 어려운 우리말이 있다.(계림유사에 '天曰漢捺'이라고 되어 있다) 어린이들이 '漢捺'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天을 알겠는가.³²⁾

이 이론은 사실은 우리말로 된 글을 읽는 이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한문책을 읽는 과정에서 개입하는 한자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 따름이고, 우리에게 언어 생활에서 쓰이는 음성 표상이 '한자 발음' 외에 '우리말'³³⁾의 두 가지여서 오히려 한문 독서를 할 때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구절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사대주의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독서를 '수양을 통한 이치의 체득 과정'이라고 보았던 성리학적 읽기 이론에 비해서 박지원의 이론은 '음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언어가 운용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자각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박지원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한문 원전(原典)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인간은 언어 습득의 단계상 '음성 언어'를 먼저 배운다. 그런데 중

32) “中國因字入語，我東因語入字，故華彝之別在此，何則因語入字，則語自語書自書，如讀天者曰漢捺天，是字外更有一重難解之謬，說郛有鷄林類事天曰漢捺也，小兒既不識漢捺爲何語，則又安能知天乎?” 박지원, 「피서록」: 『국역 열하일기』(II), 205~206면, 민족문화추진회, 1982.

33) 예를 들면 '棠'에서 한자 발음은 [당]이고, 우리말은 [아가외] 혹은 [아가위] 등이다.

국에서는 그렇게 습득하는 음성 언어가 모두 한자와 대응한다. 따라서 한자를 모르는 어린이의 상태라 할지라도 이미 어린이가 내뱉는 음성 언어는 한문 문장으로 전환 가능하다. 따라서 이후에 한문 문장을 습득할 때에 훨씬 이롭다. 궁극적으로 박지원의 이론은 청각 자체가 진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 서구적 음성 중심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말소리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는 의식의 성장은 분명히 민주적인 것이다.

반면에 우리 나라에서는 한문 원전을 이해하는 데에 두 가지 장애가 있다. 우리의 모국어는 중국어가 아닌 우리 방언(方言)³⁴이므로, 궁극적으로 한문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언으로 풀이'해야 한다. 실제로 세종조 이후 언해(諺解)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져 온 까닭도 이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풀이의 문제에 대해 박지원은 '한겹 풀기 어려운 우리말이 있다' 하였으니, 그에게 우리말은 한자를 이해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물건으로 이해되고 있는 셈이다.

박지원은 이렇게 우리말에 비해 한자를 중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소리의 간섭과 존재를 한문 읽기 이론에서 문제시한 중요한 언급을 남긴 셈이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근대적 독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다. 우리말 소리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근대의 언문일치(言文一致)된 글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지원은 그 문재(文才)의 천재성이나 문학적 업적에 대한 평가와 별도로, 읽기 이론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는 큰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2. 한글 읽기 이론의 맹아 : 최세진의 이론

지금까지 몇 가지 읽기 이론을 살펴 보았지만, 우리말 소리에 대한 긍정적 자각이나 순수한 한글 읽기의 이론은 거의 없었다. 이것은 한글

34) 여기서 방언(方言)은 오늘날의 사투리 개념이 아니라 중국말과 다른 지방어(地方語)인 우리말, 이른바 '방언이어(方言俚語)'의 개념이다. 앞에서 살펴본 언(諺)의 개념과 같다.

이 공용어화하지 못한 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글이 공용어화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한글이 훌륭한 읽을거리들을 제공하고 한글이 명실상부한 문명어(文明語)로 발달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인 것이다. 한문의 그늘에 놓여 있던 전근대에는 우리말과 한글로 어문 생활의 전면을 포괄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웠다.

그러나 한문 읽기 교육에서 한글과 우리말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박지원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인물인 최세진(崔世珍, 1473~1542)의 업적이 그것이다.³⁵⁾ 최세진은 『훈몽자회』라는 한자 교재를 냈다. 『훈몽자회』는 『천자문』이나 『유합』 등 기존의 한자 학습서와 달리 우리말 석(釋)을 중심으로 한자를 배치한 책이었다.³⁶⁾ 단순한 한자 학습서가 아니라 한자를 표제로 삼은 우리말 분류 사전인 것이다.³⁷⁾

최세진은 초학자들이 『훈몽자회』를 학습함으로써 학습한 한자가 의미하는 우리말의 소리를 알게 될 것을 기대했다. 이렇게 되면 한글을 깨친 우리 나라의 한자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모국어로서 배운 우리말 소리와 한자의 관련성을 심도 있게 터득할 수 있게 된다. 즉 『훈몽자회』는 '한문의 암송'과 '도학적 태도 각인'이라는 중세적 학습 태도에서 벗어나 한자 하나하나를 이른바 '언어학적 대상'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최세진은 선행의 한문 원전 읽기 태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드러낸다.

만약 어린이들이 글을 배우고 글자를 알게 하려면 모름지기 먼저 사물에 해당하는 글자를 알게 하고, 실제 보고 들은 형태나 용례를 그 글자에 부합시켜야 하며, 그런 연후에 다른 글을 읽게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오늘날 아

35) 최세진이 북학파보다 앞서서 한글을 강조하고 읽기 이론의 선두에 선 것은 그의 출신이 중인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북학파들은 당대의 최고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학문 수준을 따라잡는 것이 목표였다면, 당대 조선인들의 어문 생활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접근해 있던 인물은 사실상 최세진이었다.

36) 앞서 설명한 '棠 아가위 당'은 『훈몽자회』가 보여주는 한자 해설 방식이다.

37) 이기문(1971) 참조.

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비록 『천자문』과 『유합』에서 시작하여 경(經), 사(史) 등의 여러 책에 이르기까지 두루 읽기는 하지만, 다만 그 글자만을 풀이할 뿐, 그것이 나타내는 실제 사물은 풀이하지 않으니, 마침내 글자와 사물이 완전히 떨어져 둘이 되었고, 조수(鳥獸)와 초목(草木)의 이름에 이르러서도 두루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³⁸⁾

최세진의 읽기 이론은 분명히 주희나 이이의 그것과는 명백한 차이를 갖고 있다. 책읽기를 전체적인 공부의 한 과정으로 보고 문자를 읽는 행위와 그 목표를 명확하게 떼어서 생각하지 않는 도학적 읽기 이론에 비해, 최세진은 언어의 운용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통적인 도학적 읽기 이론에 대한 최세진의 해석이다. 최세진은 전통적 독서 방법을 설명하면서, ‘글자만을 풀이할 뿐, 그것이 나타내는 실제 사물은 풀이하지 않는〔只解其字, 不解其物〕’ 것이라고 했다.

애당초 주희나 이이의 도학적 읽기 이론의 목표는 바깥 사물이나 일 처리의 바른 도리를 아는 것이었다. 그것을 현대어로 굳이 풀자면 ‘문제 상황’³⁹⁾, ‘문제 상황에 대한 고민’⁴⁰⁾, ‘상황에 대한 윤리적 해결’⁴¹⁾일 것이다. 이것은 애당초 ‘물(物)’의 상태로 수렴될 수 없다. ‘물(物)’은 사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물건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⁴²⁾ 즉 도학자에게는 독서가 단순히 언어 활동이 아닌 종합적 수양이었던 것처럼, 독서의 단위도 문자 하나하나가 아닌 책 전체가 나타내는 상황이었다.

38) “若使童稚學書知字，則宜先記識事物標號之字，符見跡名之實然後，然後效進於他書也。(…)今之教童稚者，雖習千字類合，以至讀遍經史諸書，只解其字，不解其物，遂使字與物二，而鳥獸草木之名，不能融貫通會者多矣。” 최세진, 『訓蒙字會』引, 姜信沆(1987: 211)에서 재인용.

39) 원문을 들면, ‘징계할 악의 문제(惡之可戒者)’이다. 이이/성백효 옮김(1992: 90).

40) 원문을 들면, ‘성인이 마음쓰신 자취(聖賢用心之迹)’이다. 이이/성백효 옮김(1992: 90).

41) 원문을 들면, ‘본받을 선의 문제(善之可效者)’이다. 이이/성백효 옮김(1992: 90).

42) “物，萬物也。牛爲大物，故從牛，勿聲。”『中文大辭典』6, 大北: 中國文化大學, (1979: 107)

반면에 최세진의 이론은 ‘글자의 풀이[解字]’, 나아가 글자가 나타내는 ‘사물의 풀이[解物]’까지 강조하고 있다. 최세진은 당대 한문 읽기가 경사(經史)를 해석할 때 글자만을 풀이한다고 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이른바 주소학(註疏學)을 가리키는 것이다. 주소학은 성리학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의리나 자연에 관한 이론적인 논변을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체를 가지지 않는 수가 많다. 오로지 추상적 상황이나 관련성만이 존재할 따름이다.⁴³⁾

최세진이 한자의 풀이에서 물(物)을 강조하는 것은, 『훈몽자회』가 주로 일상 생활의 사물에 대한 한자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과 상응한다. 최세진의 기획이 성공하였다면 아마도 오래지 않아 한문 표현을 순한글 표현으로 일대일 번역하고, 한문을 벗어난 순한글 표현도 『훈몽자회』의 석(釋) 부분을 활용함으로써 손쉽게 가능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이나 박지원에서 보듯이 한자와 우리말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으며, 우리말의 표기인 한글은 그 자체로 독립된 표현 도구로서 거의 쓰이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글 자료에 대한 읽기 이론은 더더욱 없었다. 다만 최세진은 그러한 이론으로 가는 맹아적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IV. 근대적 읽기 이론의 전개

1. 근대 언어학의 발달 : ‘의미’의 발견

우리말 표기인 한글 자료에 대한 읽기, 국문 독서가 보편화된 것은 한문의 폐지 이후이다. 한문의 폐지는 근대화로 인한 필연적인 추세였으나, 오히려 근대화 이전까지 한문이 폐지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할 필요

43)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과 같은 실체가 없는 관념론적 논쟁이다.

가 있다. 앞서 『훈몽자회』가 한자의 이해에서 지시하는 물(物)을 강조하고, 그것을 우리말 소리인 석(釋)으로 풀이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한자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한 것이었다. 『훈몽자회』에 전제된 언어관은 일자일의(一字一義)로서, 근대적 언어관의 선구로 보아도 틀림이 없다. 한 언어 기호가 일정한 심적 내용인 '의미'를 환기하고, 그러한 기호들이 선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확정된 '의미 덩어리', 즉 문장의 지시 내용을 표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도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세진이 살던 당시의 공용 문자인 한자에는 이러한 근대적 언어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한자는 그 운용의 특성에서 일자다의(一字多義), 다자일의(多字一義) 등 자(字)와 의(義) 사이에 확정적 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는 그림 문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⁴⁴⁾ 즉 한자의 표상 기능은 근대 언어가 '의미'라는 실재하지 않는 추상적이고 확정된 '만들어진 지시체'를 가정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한다. 즉 근대 언어는 '의미'라는 확정된 '이デア'를 지시한다.⁴⁵⁾ 그러나 고전 한자는 '이デア'가 아닌 실제 사물이나 상황 자체를 직접 표상해 버린다.⁴⁶⁾ 실제 사물이나 상황은 이デア로 확정되지 않는 한 끊임없

44) 졸고(2003) 참조. 물론 『훈몽자회』는 '일자다의'와 '다자일의'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자다의의 경우 같은 글자를 두 번 이상 표제자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훈몽자회』를 사전으로 볼 경우에 그 일관성을 떨어뜨린다.

45) 근대 언어의 의미론적 특성인 '기호 : 의미'의 대응은 궁극적으로 플라톤의 이デア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플라톤의 이デア는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다. '이デア'는 개별적인 감각 사물이나 개별적인 행위와 달리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같다. 이러한 이デア론의 문제점은 그것이 단순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론으로 생성된 이상 현실의 실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이デア가 존재한다고 단순히 믿는 것과, 이デア가 존재한다고 믿는 상태에서 이론을 전개해 그것이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존재하지 않는' 이デア로 '존재하는' 현실을 재단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크 데리다가 음성 중심주의자로 플라톤을 지목하고 그 폐해를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46)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러한 언어를 가리켜 '사물들과 유사한 언어'라 표현하였다. 미셸 푸코, 이광래 역(1987: 41-73).

이 재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의적(多義的)이 된다. 주희나 이이의 이론에서 '확정되고 고정된 의미'라는 근대적 읽기의 목표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애당초 '의미'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언어가 원시 상태에서 근대어로 발달하면서 부각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시 언어는 표상 내용과 언어 기호가 밀접하게 연결된 채 사용되었고, 문장도 길지 않았다. 이 때에는 언어 기호의 지시 내용이 눈앞에 있는 것이거나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⁴⁷⁾ 제3의 관념으로서 '의미'라는 것은 있을 필요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언어가 차차 원시 단계에서 복잡한 문명으로 발달하고, 언어 기호 자체가 명료화되어 가면서 언어의 고유한 시각성·청각성 등이 부각되었다. 또한 언어를 통한 지식의 전수를 위해 체계적이고 인위적인 언어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로써 언어 자체가 독립된 실체로서 부각되고, '의미'는 본래의 애매한 위치에서 언어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의미(意味)'라는 말은 본래 ① 정취, 아취, 느낌, ② 기분, 마음의 상태'라는 뜻을 지닌 한문 어구였다.⁴⁸⁾ '의미심장(意味深長)'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의미'는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깊고 그윽한[深長]' 것일 수는 있어도 '명확하게 확정되는' 것일 수는 없었다. 이러한 '의미'가 '언어 기호가 환기하는 심적 내용'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⁴⁹⁾ 물론 여기에는 서구 언어학의 도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47) 데리다는 이러한 체험할 수 있는 지시 내용을 '현존(現存: presence)'이라고 일컬었고, 이러한 체험 가능한 지시 내용, 이른바 이데이에 대한 강조는 플라톤의 일원론적 철학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비판한다. 체험 불가능하고 간접적인 지식을 배척하는 이러한 태도를 데리다는 '현존의 형이상학'이라고 규정한다. Christopher Norris/이종인 옮김(1999: 67) 참조.

48)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1968. 오늘날의 '언어 기호가 환기하는 일정한 심적 내용'이라는 의미는 근대에 'meaning'의 번역어로서 추가된 것이다. 참고로 『岩波 古語辭典』(東京: 岩波書店, 1974)에는 '意味'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 현대 언어학에서 쓰이는 '의미'라는 용어는 근대에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다.

49) 근대 이후의 '意味'의 의미는 ① '아취'에 ② '언어, 작품, 행위 등 표현에 의해 보여지는 내용'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日本 國語大辭典』, 東京: 小學館, 1983.

고, 서구 언어학 가운데서도 음성 언어를 강조하고 그것의 의미를 정식화한 소쉬르의 언어학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근대 국어교육이 전제하는 '언어' 역시 이러한 것이다.⁵⁰⁾

2. 근대적 읽기 이론 : 표음 문자의 의미 파악

근대 언어학은 음성 중심주의의 전통을 지닌 서구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19세기에 교통 수단의 발달과 제국주의의 융성이 함께 하면서 미개발 국가의 음성 언어를 조사할 때에 근대 언어학이 그 도구로 쓰였다. 따라서 근대 언어학은 필연적으로 음성 언어와 구어를 주요 자료로 삼으면서 발전했다.⁵¹⁾ 그러면서도 구어(口語)를 구어 상태로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표음 문자로 명확하게 표기하여 적었다. 그리고 음성 언어에는 새롭게 발견된 이데아로서 고정되고 확정된 심적 내용인 '의미'가 대응되었고, 그러한 대응은 사전의 편찬으로 확정되었다. 우리는 오늘날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 내지 '읽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의미의 파악'이라는 전제가 함유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읽기는 문자의 해독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문자의 해독이 읽기의 전부 가 될 수 없다. 읽기는 또한 인격의 수양, 정서의 함양, 지혜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읽기

50) 노명완은 표상(representation)을 지식 또는 앎의 형태로 규정하면서, 언어는 '사물이나 사상으로부터 의미를 추출하고 그 의미를 통합하고 표상하는 상징'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언어가 의미의 세계를 형성한다고 함으로써, '의미'란 형성되는 것이지 실재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최현섭 외(1995: 44) 참조.

51) 근대에 음운론이 변창한 사실도 이와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의 음운론은 그 연구 대상이 '소리의 체계와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인데, 말의 소리만을 따로 떼어내어 의미의 연관을 이해함이 없이 연구 대상으로 삼는 관습은 19세기 이전에는 고대 인도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말소리가 물리적 실체이자 언어학적 연구 대상으로 이해되는 것은 소리가 언어의 의미 있는 한 요소로 축소되고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연구 대상이 되면서부터이다. 음운론에 대해서는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1999: 588-589) 참조.

의 직접적 목적이나 의도적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읽기는 이 두 현상의 중간에서 일어나는 정신 작용이다. 즉 읽기는 독자가 글을 해독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하고, 기억하는 과정이다.⁵²⁾

독서 이론의 역사적 변화를 검토해 온 우리로서는 여기에서 몇 가지 점을 흥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주희와 이이가 지적했던 '인격의 수양'은 직접적인 읽기의 목표에서 물러났다는 것이다. 즉 읽기가 기능의 측면으로 후퇴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⁵³⁾ 다음, 읽기의 본질이 '의미 내용에 대한 이해'임을 명백하게 했다는 점이다.⁵⁴⁾ 이는 근대 언어학의 전제에 따를 때 피할 수 없는 지점이다.

또 한 가지 현재 국어교육학에서 나타나는 읽기 이론의 특징은, 읽기 재료의 문제를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료가 말소리인가 글자인가, 한자음인가 지방어인가 하는 문제는 중세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중요한 논쟁거리였다. 그러나 오늘날 읽기는 '문자의 해독을 통한 의미 파악'이라는 식으로 규정된다. 물론 이때의 문자는 표음문자라는 것이 거의 암암리에 전제되어 있다. 근대는 구어의 시대이고, 근대에는 구어를 적는 문자만이 공용어로서 의미 있기 때문이다.

52) 노명완, 「국어교과의 수업 방법」, 최현섭 외(1995: 223).

53) 물론 하향식 읽기에서는 독자의 적극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읽기를 기능의 차원으로 후퇴시켰다는 평가가 지나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향식 읽기든 하향식 읽기든 글의 의미 파악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다만 글 자체를 강조하느냐 독자를 강조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최현섭 외(1996: 255). 이 점은 최근 읽기 이론의 침단이라고 이해되는 구성주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구성주의는 독자와 맥락의 적극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읽기가 '의미의 구성'이라는 관점을 넘어서지 않는다. Spivey, N.N./신현채 외 옮김(2001: 99-161) 참조.

54) 읽기에 대한 행동주의 심리학의 정의는 '기호를 해독하는 과정'이며, 인지심리학적 정의는 '독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을 조작하여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최현섭 외(1995: 250).

V.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의 읽기 이론의 역사적 변천을 검토하였다. 고려 시대부터 우리 나라에 소개된 성리학적 읽기 이론은 읽기를 언어 행위로 한정시켜서 보지 않았다. 읽기를 통해 얻은 지식은 반드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며, 읽기는 이러한 실천의 전 단계로 이해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읽기와 실천을 분리해서 이해한 것은 아니고, 읽기는 전체적인 수양 공부라는 큰 틀 속에서 이해되었다. 즉 책을 읽으면 나의 몸(體)에서 행위(行)의 윤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책의 내용도 이러한 '체행(體行)'⁵⁵⁾할 수 있는 윤리적이고 실존적인 지식이 중심이 된다는 것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에 가까이 오면서 읽기를 '언어 행위'로 한정해서 보는 관점이 갈수록 명백해졌다. 한글이 창제된 뒤로 읽기에서 '음성 언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사정도 이와 관련이 있다. '체행(體行)'할 수 있는 읽기를 강조하는 것은, 사유와 실천을 분리시키지 않는 전통적인 지식 체계를 옹호하는 자세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표음 문자를 매개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글이 창제되고 그 이후 이른바 우리말과 중국어의 차이가 차차 인식되면서 '수양 공부의 한 부분'으로서 읽기가 아닌 '읽기 자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최세진은 이러한 읽기 가운데서도 특히 한글 읽기 이론의 맹아를 보여주었다.

근대 이후 도입된 서구의 언어학은 '읽기'의 개념을 '표음 문자의 의미 파악'으로 축소시켰다. 언어 기호가 그 자체로 부각되면서 현대 문명에서 널리 쓰이는 서구의 표음 문자로 표기된 언어가 언어의 표준으로 인식되고, '의미'의 뜻도 '정취'나 '아취'와 같은 실존적인 것에서 '언어 기호가 환기하는 심적 내용'이라는 개념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한정되었다. 그리

55) '몸으로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조어(造語)한 용어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 26)과 같은 지식이 아니라 주 27)과 같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실존적으로 체득될 수 있는 지식이 체행(體行)할 수 있는 지식이다.

하여 읽기는 '글을 해독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하고, 기억하는 과정'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오늘날의 교육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전통적인 읽기 이론은 오늘날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러한 읽기 이론은 지식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단편적인 사실'이나 '이성적 추론'만이 앎이 아니라 '무언가를 할 줄 아는 것', '윤리를 체득하는 것'도 앎이며, 전근대의 읽기는 그러한 앎을 추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없는 다양한 과목의 지식을 주입식으로 배우는 오늘날의 교육 현실에 비교해 볼 때, 이는 중요한 반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전통적인 읽기 교육의 방식을 검토하여 현재의 언어 이론과 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재구성하는 일은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이다.*

* 본 논문은 2004. 10. 21. 투고되었으며, 2004. 11.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4. 11. 22.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1. 자료

『學蒙要訣』

『熱河日記』

『朱子語類』

『訓蒙字會』

2. 논저

강신항(1987),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김민수(1980), 『新國語學史』, 일조각.

김여수 외(1989), 『철학개론』, 양서원.

김종철(2003), 「근대 초기의 독서론」, 『독서연구』 10집, 한국독서학회.

김종철(2004), 「국어교육과 민주주의」,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4년 봄 전국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민현식(2003), 「국어문화사의 내용 체계화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0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배수찬(2001), 「고전 국문소설의 서술 원리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배수찬(2003), 「한자의 특성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우한용(1997),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심소희(1995), 『皇極經世聲音唱和圖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이기문(1971), 『훈몽자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오덕(1991), 『우리글 바로쓰기』, 한길사.

이용백(1975), 『국어교육사연구』, 신구문화사.

임형택(2002), 「한민족의 문자 생활과 20세기 국한문체」,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조희정(1998), 「전통적 글읽기의 성격과 과정」, 『문학교육학』 2호, 한국문학교육학회.

崔承熙(1976), 『朝鮮初期言官言論研究』,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 최현섭 외(1996),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최현섭 외(1995), 『국어교육학의 이론화 탐색』, 일지사.
Alberto Manguel/정명진 옮김(2000), 『독서의 역사』, 세종서적.
Christopher Norris/이종인 옮김(1999), 『데리다』, 시공사.
Michel Foucault/이광래 옮김(1987), 『말과 사물』, 민음사.
Spivey, N.N./신현재 외 옮김(2001), 『구성주의 은유』, 박이정.
야마다 케이지/김석근 옮김(1994), 『주자의 자연학』, 통나무.

〈초록〉

읽기 이론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연구

배수찬

이 논문은 우리 나라에 있었던 읽기의 이론들을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고 살펴보고 그에 깔려 있는 전제들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과거에 있었던 읽기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 사적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가 오늘날의 읽기 개념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생각해 보았다.

고려 시대부터 우리 나라에 소개된 성리학적 읽기 이론은 독서를 언어 행위로 한정시켜서 보지 않았다.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은 반드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며, 독서는 이러한 실천의 전 단계로 이해되었다. 책을 읽으면 나의 몸〔體〕에서 행위〔行〕의 윤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책의 내용도 이러한 '체행(體行)'할 수 있는 윤리적이고 실존적인 지식이 중심이 된다는 것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었다.

'체행(體行)'할 수 있는 읽기를 강조하는 것은, 사유와 실천을 분리시키지 않는 전통적인 지식 체계를 옹호하는 자세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표음 문자를 매개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글이 창제되고 그 이후 이른바 우리말과 중국어의 차이가 차차 인식되면서 '수양 공부의 한 부분'으로서 읽기가 아닌 '읽기 자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최세진은 이러한 읽기 가운데서도 특히 한글 읽기 이론의 맹아를 보여주었다.

근대 이후 도입된 서구의 언어학은 '읽기'의 개념을 '표음 문자의 의미 파악'으로 축소시켰다. 언어 기호가 그 자체로 부각되면서 현대 문명에서 널리 쓰이는 서구의 표음 문자로 표기된 언어가 언어의 표준으로 인식되고, '의미'의 뜻도 실존적인 것에서 개념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한정되었다. 그리하여 읽기의 의미도 '글을 해독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하고, 기억하는 과정'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의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이는 국어교육만이 아니라 교육 일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핵심어】 읽기, 읽기 이론, 체행, 표음 문자, 의미 파악.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ical Change of the Theory of Reading

Bae, Su-chan

This thesis studies the theories of reading on Korea historically, and investigate the premises which are lying on the act of reading. The Neo-Confucian theory of reading which was intruded in Koryŏ dynasty didn't grasp the act of reading as a linguistic act. The knowledge which was gained through reading must be practiced, and reading was understood as the pre-step of this practice. If one reads a book, the ethical change of action must appear within the body of the man. As a result, the contents of a book abounds in the existential knowledge which can be practiced by the human body.

It is the affirmative attitude on the traditional system of knowledge that emphasizes on the reading which can be practiced by the human body. The practice after reading don't intermedate the phonogram. By the way, after Korean alphabet(Hangul) was created, people came t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spoken language of Korea and that of China. And people gradually became interested on not the traditional reading but the reading itself. Choi sejin showed the sprout of theory of reading on the Korean alphabet in this trend.

Modern linguistics reduced the concept of 'reading' to the act of grasping the meaning of phonogram. As linguistic sign was stand out itself, western phonogram and its inscription were regarded as the standard of language. And the meaning of 'meaning' was restricted to the conceptual and rational one. So the meaning of 'reading' was limited to the process of decoding, understanding, studying, and remembering the contents of written language. This change is being reflected on the contemporary educational practice, and this is the problem of education in general, not only that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reading, theory of reading, practice by the human body.
phonogram, decoding the meaning.